

#해시태그

해(解,답)가 없는
시장을
태연하게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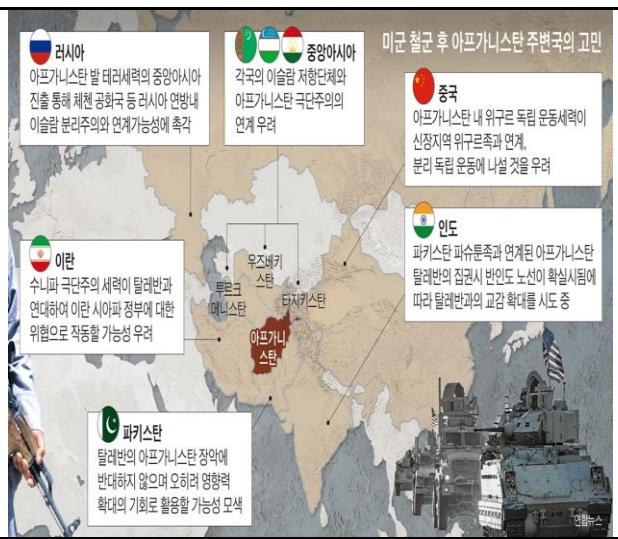


주식전략/시황. 한대훈 / 3773-8515, handaeoon@sksecurities.co.kr

2021/0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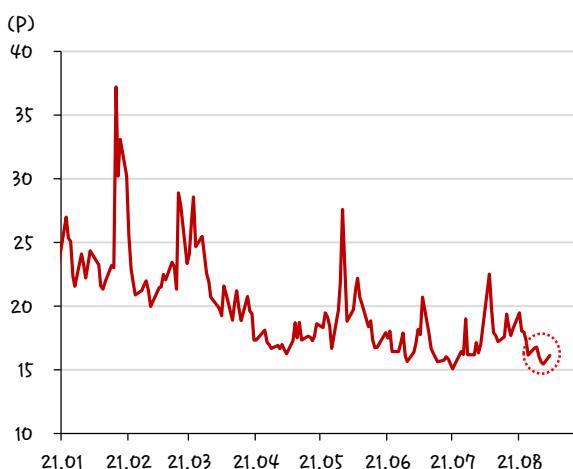
탈레반,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다

미국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주변국들의 상황



자료: 조선일보, SK 증권

VIX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SK 증권

20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이 막을 내리며,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권력 이양을 선언했다. 20년간 이어진 전쟁을 통해 미국은 2500명 가까이 전사했고, 2.3조 달러의 전쟁비를 지출했다. 미국에서도 철군을 지지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정치적 부담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그 동안 미국은 철군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철군이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이번에 미국은 전격적으로 철군을 시작했다.

당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향후 우리가 이번 탈레반의 권력 재창출을 통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다. 9/11 테러와 달리 지금 탈레반은 미국 본토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인도 등이 다급하다. 주변국들은 이제 테러걱정을 해야된다. 10년전 이집트의 봄 당시, 시리아 난민들의 유럽 유입으로 유럽은 일대 혼란에 빠진 기억이 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유입과 테러 확산은 주변국들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위구르 분리주의 단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의 아프간 연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유가의 향방이다. 다시 중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유가는 언제든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고, 이는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 금융시장에 불안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위의 리스크는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